

근대 이후 한국 육류 소비량과 소비문화의 변화 - 쇠고기 · 돼지고기를 중심으로 -

이규진¹ · 조미숙^{2*}

¹가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강사, ²이화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Transition of Korean Meat Consumption and Consumption Trends after Modern Times - Focused on Beef and Pork -

Kyou-Jin Lee¹, Mi-Sook Cho^{2*}

¹Lecturer, Department of Food & Nutrition, Gachon University

²Department of Nutrition Sciences & Food Management, Ewha Womans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changes in Korean meat consumption as well as meat consumption trends.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the supply of meat was considerably insufficient. However, meat consumption mainly in large cities has gradually increased. Especially, 'Pyeongyang cow', a specialty of Pyeongyang, started being raised as edible beef cattle in 1933. During the chaotic period following liberation from Japan, the price of meat sharply increased. However, as the meat supply stabilized, the 'beef grade system' was introduced in 1967. Since then, beef has sold according to region. During the early economic growth period of the mid-1970s, meat consumption rapidly increased, and foreign beef was first imported in 1976. The preference for beef was somewhat attenuated due to the outbreak of mad cow disease and economic slowdown of the 1990s, resulting in an increase in the consumption of pork, a replacement meat. During the recent period of economic development, meat consumption has somewhat fallen and remained low. In late 2003, with the occurrence of mad cow disease in the US, the demand for pork, and especially pork fatback, has sharply increased.

Key Words: Meat consumption, meat consumption trend, meat consumption tendency, meat-eating

1. 서 론

근대 이후 한국의 식생활에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육류 소비의 증가이다. 전통적으로 농경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소는 농사를 짓기 위한 농우(農牛)였으며, 『삼국사기』 신라본기 지증왕 3년(502년)에 처음으로 우경을 하였다 하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불교가 도입되면서 법흥왕 16년(529년) 살생금지령이 내려졌고 육식은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다(이 1984b). 그러나 고려 말기 유목계 민족인 몽고지배 하에서 목장 개발로 고려에 소가 많이 증식되었고 더불어 도살법, 고기 요리법이 발전되었다. 소의 도살도 크게 늘어나서 농경에 지장을 주게 되자 공민왕 11년(1362)에는 농우보호를 위해 금살도감을 두기도 하였다(이 1984a). 그러나 여전히 육식은 일부 계층에서만 향유되었고 일반 백성들에게는 매우 한정적이었다.

그런데 갑오경장 이후 문호를 개방하여 서양의 식문화가 도입되면서 근대화의 물결 속에 쇠고기, 돼지고기 등 육류 소비가 점차 늘게 되었다. 근대 이후 약 100년 동안 육류 공급량과 육류소비 경향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많은 변화를 겪었고 우리나라 음식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왔다. 그러나 시대에 따라 육류소비량이 얼마나 변화했으며 이에 따라 육류소비가 우리 식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일제강점기와 해방, 6.25 전쟁 등 역사적 격동기에 대해서는 그 시대의 육류 소비량 조차 제대로 파악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우리나라의 육류 수급과 소비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1980년대 이후로 한정되어 있다. Lee 등(1999)은 1980~1990년대 우리나라의 육류 소비구조의 특징으로 육류 소비증가추세의 지속과 특히 쇠고기에 대한 선호경향을 지적하였다. 소득과 쇠고기 수요의 상관관계에 대

*Corresponding author: Mi Sook Cho, Department of Nutrition Sciences & Food Management, Ewha Womans University, Seodaemun-gu, Daehyun-dong 11-1, 120-750, Korea Tel: 82-2-3277-2826 Fax: 82-2-3277-2862 E-mail: misocho@ewha.ac.kr

해서는 '육류 수요대체관계분석'을 통해 소득이 증가할수록 쇠고기 수요가 크게 증가한다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Song 등(2004)의 연구에서는 국내 쇠고기 시장이 1990년부터 본격 수입개방되면서 수입량이 급격히 늘었고 UR 협상에서 약정된대로 2001년부터 쿼터제 철폐와 함께 완전자유화 되었는데 간헐적인 가축질병 발생이 통상의 소비구조의 가격순환을 교란시켰다고 하였다. Woo 등(2009)은 쇠고기 산업의 구조와 생산자 행태와의 관계분석을 위해 한우 브랜드와 육우 브랜드 경영업체를 조사하였다. 한우 브랜드 경영업체는 가격 및 품질 경쟁력 제고 노력과 함께 직영 매장의 확대 등 마케팅 전략에 주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육우 브랜드 경영업체는 육우 시장이 한우와 수입육 시장 중간에 위치한 것으로 평가하고, 고급육으로의 전환보다는 품질 균일화를 통해 중등육 시장에서의 확고한 위치를 우선시하였다. 또한 소비자들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인식이 한우 소비량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Yoon & Woo(1999)는 성인남녀 491명을 대상으로 육류음식에 관한 의식구조 및 이용행동을 조사했는데 1990년대 말부터 '육류이용이 전체적으로 감소하였다'는 비율이 44.9%로 가장 높았으며, 감소 이유는 50대 이상의 연령층은 '건강', 20대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근대 이후 우리나라 음식문화에 큰 변화를 가져온 육류소비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근대 이후 육류소비 문화가 어떻게 우리나라 식생활에 정착이 되어왔는지 살펴보기 위한 일환으로 육류 공급량, 소비량과 소비문화가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는 기본적인 시각을 갖고 시대별로 소비량과 소비경향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근대 이후 약 100년간의 육류 소비량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육류소비 경향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근대 이후 한국 식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온 육류소비문화가 우리 식생활에 어떻게 정착되어 왔는지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난 100년간 한국의 육류 소비량과 소비경향의 변화를 고찰하기 위해, 연구 대상 기간을 일제 강점기(1910~1945년), 해방이후 혼란기(1945~1975년), 경제발전전기(1975~2000년), 경제발전 후기(2000년 이후)로 구분하였다. 문헌자료는 조선 총독부에서 발간한 각종 자료, 통계청의 자료, 연감, 농촌생활사에 관한 기록, 그리고 당시 신문·잡지의 관련기사 등을 이용하였다.

일제 강점기의 식육소비량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통계자료는 『조선총독부 통계연보』이다. 1907년에 1906년을 대상으로 하는 『제1차 통감부통계연보』가 간행된 이래, 『통감부통계연보』로 제3차 1908년분까지 간행되었고, 이른바 '한국병합' 이후에 나온 1909년분 이래 『조선총독부통계연

보』라는 이름으로 1944년 3월에 나온 1942년분까지 지속적으로 간행되었다(박 & 서 2003). 『조선총독부 통계연보』는 항목분류와 편제가 자주 바뀌었는데 축산과 관련된 수치는 주로 '농업'분야에 속해있다. 일제 강점기 말기에서 한국 전쟁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격동기인 1942년부터 1954년 사이는 공식적으로 집계된 자료가 없어 그 당시 신문·잡지의 관련 기사를 참고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육식소비량의 공식적으로 집계되기 시작한 1955년 이후부터는 축산물 통계총람의 공식통계를 기본으로 육류 소비량을 조사하였다.

II. 본 론

1. 일제 강점기(1910~1945년)

1910년 1월 19일자 「대한매일신보」에는 “증승잡은 수효”라는 제목으로 룡희 삼년(1909년)에 각 지역별로 도축한 소, 양, 말, 돼지의 총수를 밝힌 기사가 실렸다. 육류 도축 수는 한성부를 포함한 경기도가 45,728두로 가장 많고 전북(15,800두), 경북(14,516두), 충남(13,449두) 등의 순서로 그 뒤를 잇고 있다. 북쪽 지역에서는 평남이 21,524두로 가장 많고 황해도(11,680두)에서 도축이 많았다.

당시 자료에는 특히 '평양우'에 대한 내용이 많은데, 1935년 발간된 『평안남도 농업』에서는 “본도 축우를 고래로 '평양우'라 칭해왔는데 체격이 위대하고 육질이 맛있다. 평양의 명물로 체질이 강건하고 성품이 온순”하다고 하였다. 소화 8년(1933) 평안남도에서 편찬된 『평양소지(平壤小誌)』에서는 “본도의 명물 및 특산물” 중 하나로 '평양우'를 꼽고 있으며 “체구가 위대하고 매우 유순하여 일 시키는데 적합하고 석회암층에서 사육하였기 때문에 맛이 좋다. 호평이 널리 퍼져있는데 현재두수는 십만 팔천여두이다. 순천, 맹산, 양덕, 덕천, 성천, 영원 등의 중간산간지대가 주산지이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 평양우를 보존하기 위해서 “평안남도의 중우를 대구, 김천, 청도등 전국 각지에 수송”¹⁾했으며 1930년대에 들어 그 수가 줄어들자 “평양우 격감 대책”²⁾이 논의되기도 하였다.

1933년부터는 평양우를 식용전용으로 키우기 시작하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는데, 이렇게 육식을 목적으로 비육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는 기사는 「평양매일신문」 1933년 9월 2일자 “평양우의 비육사양(肥育飼養)개시”이다. 내용을 보면 “순천군 은산면에 있는 우량우 생산 부락에는 작년동안 비육우 사양시험을 실시하여 평양우의 성가(聲價)를 높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평양매일신문」 1934년 12월 4일에도 “평남도 축우, 평양우의 진가 고조”라는 기사에서 “평남도에서는 소화 10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소의 증산을 시도하기로 했다”고 하여 일제 강점기 당시 정책적으로 평안남도의 소

1) 1909년 12월 10일 「국민신보」 중우배부

2) 1933년 6월 1일자 「조선신문」에는 “평양우 격감 대책”



<Figure 1> The picture of 'Guk-Kyung-Don'³⁾

를 증산하는 계획을 실시했음을 알 수 있다. ‘평양우’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소는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소화 8년 (1933년)에 조선총독부에서 발간한 『조선의 산업(朝鮮の産業)』에서 “조선의 소는 체질이 강건하고 결핵병에 대해 대부분이 면역적 저항력을 가지고 있다. 성질도 온순하여 농경용, 운반용에 적절하고 고기 맛도 뛰어나서 식용으로 귀하게 여겨지고 있다.”고 하였다.

돼지 개량종에 대한 기사도 볼 수 있는데, 1933년 8월 13일자 「경성일보」에는 “평양우의 강적 ‘국경돈’ ”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조선의 재래종 돼지는 체구가 왜소하고 늦게 성장함으로 재래종을 개량하였는데 평북 강안지대에서 사육하는 이 돼지는 ‘평북돈’ 또는 ‘국경돈’이라고 불리며 평양우의 대체재로 사용하기 위해 5개년 증산 계획을 세웠다”는 내용이다. ‘평북돈’ 또는 ‘국경돈’이라 불리는 이 개량종 돼지의 그림이 실린 기사는 <Figure 1>과 같다.

일제강점기의 식육소비량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인 『조선총독부 통계연보』를 바탕으로 1909년부터 1942년 사이의 소와 돼지의 사육두수, 도살두수, 그리고 당시 물가를 표로 재구성하면 <Table 1, 2>와 같다.

소의 총수를 보면 약간의 등락은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계속 증가하다가 1923년 1,610,097 마리를 기점으로 1929년까지 감소세를 보인다. 그 후 1930년에 감소이전의 수준을 회복하고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소의 총 도살 두수는 1909년 167,396마리에서 증가하다가 1914년에 271,178마리였던 것이 1915년에 갑자기 400,660마

<Table 1> Beef Consumption in Japanese Occupation Period¹⁰⁾

year	number of livestock	number of butchered cattle	price ⁴⁾
1909	628,142	167,396 ⁵⁾	0.350 ⁶⁾ (一斤기준) ⁷⁾
1910	703,844	175,947	0.350 (中一斤)
1911	906,057	241,548	0.240 (중급)
1912	1,040,720	236,094	0.236
1913	1,211,011	230,713	37.50(一頭)
1914	1,338,401	271,178	38.43(一頭)
1915	1,353,531	400,660	수:37.78(一頭) 압:29.66(一頭)
1916	1,353,108	309,467	45.79(一頭)
1917	1,384,609	217,279	-
1918	1,480,037	153,367	98.30(一頭)
1919	1,461,660	237,124	118.03(一頭)
1920	1,489,797	267,554	-
1921	1,524,134	329,771	0.47(百) ⁸⁾
1922	1,607,707	275,892	0.48(百)
1923	1,610,097	286,711	0.43(百)
1924	1,605,072	316,604	-
1925	1,590,806	293,975	0.47(百)
1926	1,594,894	257,271	0.43(百)
1927	1,586,418	257,374	0.54(百)
1928	1,569,722	287,955	0.435(百)
1929	1,585,526	251,204(1929년) 260,966(1938년) ⁹⁾	0.434(1929년)(百) 0.34 (1938년)(百)
1930	1,611,585	216,113	0.40
1931	1,637,019	266,095	0.34
1932	1,664,435	291,051	0.32
1933	1,663,136	288,175	0.36
1934	1,671,185	244,335	0.39
1935	1,679,470	250,446	0.40
1936	1,702,979	272,541	0.45
1937	1,713,249	286,017	0.50
1938	1,717,063	226,940	0.60
1939	1,705,462	256,191	-
1940	1,740,390	302,925	-
1941	1,753,556	315,294	-
1942	1,740,073	318,268	-

리로 대폭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1914년과 1915년의 소 도살 수를 각 도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모든 지역이 증가했지만 특히 평안남도 23,541마리에서 45,960마리로, 평안북도 17,838마리에서 27,316마리, 그리고 함경남도 11,061마리에서 22,101마리로 주로 북쪽 지방의 도살 수가

3) 출처: 「경성일보」 1933.8.13

4) 단위: 圓

5) 내지인 도축(42,569), 조선인 도축(90,334), 도살장 외 장소 추정(34,493)의 합계로 추정함

6) 경성지역 우육 上中下 중 中級을 기준으로 함

7) 一斤은 통상 600g임

8) 匁(돈)은 일제강점기의 무게단위로 一匁이 3.75 g이므로 百匁은 375 g임

9) 1929년의 도살두수와 물가에 대한 자료가 1929년과 1938년의 자료가 각기 다르게 나타남

10) 출처: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1909-1942

<Table 2> Pork consumption in Japanese Occupation Period¹⁵⁾

year	number of livestock	number of butchered pigs	price ¹¹⁾
1909	576,428	115,004 ¹²⁾	-
1910	565,757	86,101	-
1911	572,840	153,899	6.159 ¹³⁾
1912	616,945 ¹⁴⁾	264,307	-
1913	761,186	335,274	8.50(一頭)
1914	757,803	366,699	5.25(一頭)
1915	766,540	341,604	-
1916	780,077	371,253	재래종 5.17 (一頭) 개량종 10.22 (一頭)
1917	832,280	445,672	-
1918	923,979	623,157	재래종 8.87(一頭) 개량종 18.99(一頭)
1919	962,985	655,288	재래종 11.24(一頭) 개량종 28.09(一頭)
1920	977,368	201,733	-
1921	1,010,996	139,026	0.39(百)
1922	1,100,721	176,185	0.39(百)
1923	1,172,128	210,773	0.35(百)
1924	1,129,928	192,513	-
1925	1,150,027	170,307	0.40(百)
1926	1,220,679	206,686	0.44(百)
1927	1,244,468	224,788	0.55(百)
1928	1,277,816	227,773	0.416(百)
1929	1,327,983	240,860(1929) 748,417(1938)	0.41
1930	1,386,891	722,062	0.39
1931	1,348,199	725,796	0.32
1932	1,339,473	689,217	0.29
1933	1,425,142	735,602	0.31
1934	1,583,513	841,057	0.33
1935	1,616,408	925,587	0.36
1936	1,573,590	875,714	0.40
1937	1,625,091	800,936	0.45
1938	1,506,628	830,750	0.53
1939	1,400,038	771,248	-
1940	1,320,230	544,814	-
1941	1,327,042	500,107	-
1942	1,149,563	536,581	-

격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가 다시 1916년에는 전국적으로 줄어들어서 1918년에 소의 전국 총 도살 두수가

<Table 3> The Number of Butchered Livestock of Kyung-Sung in 1930s¹⁶⁾

	1/1937 ¹⁷⁾	11/1937 ¹⁸⁾	12/1937 ¹⁹⁾	7/1938 ²⁰⁾	10/1938 ²¹⁾
Beef	2,215	2,326	2,806	1,515	2,014
Pork	1,165	1,165	1,337	1,211	1,194
Others	14	3	9	9	22
Total	3,394	3,484	4,152	2,735	3331

153,367마리까지 줄었는데, 자료에는 수치만 제시되어있을 뿐 도살 두수의 등락 원인에 대해서는 밝혀져 있지 않았다.

가격은 一頭 기준으로 1916년에는 45.79圓이었던 것에서 1918년에 98.30圓으로 급등한 것을 볼 수 있다. 물가는 그 기준이 ‘一斤’였다가 1913년에는 ‘一頭’로 1921년에는 ‘百匁’로 단위가 변경되었다.

돼지의 총수는 1909년부터 1935년까지 대체적으로 계속 증가세를 보였고 1936년, 1938년에 전년대비 감소를 나타냈다. 그리고 1940년부터 1942년까지 계속 감소세를 보였다.

돼지와 소의 도살두수를 비교해보면, 1915년에 소의 도살 수는 전년보다 약 12만 9천두 격증된 반면, 돼지는 전년보다 약 2만 5천 마리 감소를 보였다. 또한 1918년에는 반대로 소 도살 수가 전년보다 6만 4천두 가까이 감소를 한 반면, 돼지는 17만 7천여 마리가 증가하는 등 반대 경향을 보여 소와 돼지가 대체재로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된다.

돼지고기의 물가는 초기의 단위가 ‘一頭’였으며 1916년부터는 재래종과 개량종이 구별되었는데 두배 이상의 큰 차이를 보였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체구가 작은 재래종 돼지에 비해 ‘국경돈’ 등의 개량종이 훨씬 상품 가치가 높았음을 알 수 있다. 1921년부터는 재래종과 개량종의 차이가 없어지고 단위도 소와 동일하게 ‘百匁’으로 변경되었다.

한편 1933년의 “우육소비조사”에서는 경기도에 이어 평안 남북도가 소비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경성 중심의 경기도 지역과 평양 중심의 평안도 지역에서 우육소비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경성의 경우 1937년 2월 14일부터 1938년 11월 8일까지 5건의 「조선일보」 기사에 나타난 소비량을 정리하면 <Table 3>과 같다.

기사제목만 보더라도 1937년 12월 11일에는 “육식량이 폭증”, 1938년 1월 14일에는 “도시인은 육식당-연말 경성에 도축 급증”이라고 하여, 이 시기에 도시를 중심으로 육식량이

11) 단위: 圓
 12) 내지인 도축(18,430), 조선인 도축(44,031), 도살장 외 장소 추정(52,543)의 합계로 추정함
 13) 한 마리당 가격 제시(소 한 마리는 49.263으로 제시)
 14) 1912년, 1913년 자료에는 625,095로 되어있지만 1914년 이후 자료에는 616,945로 제시됨
 15) 출처: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1909-1942
 16) 출처: 「조선일보」, 각주 18번부터 22번까지의 기사
 17) 「조선일보」(1937.2.14) “舊正에 먹은 牛肉 작으만치 천이백두 - 7일 하로에는 일백삼십이두 도살”
 18) 「조선일보」(1937.12.11) “육식량이 폭증- 경성부의 도살수”
 19) 「조선일보」(1938.1.14) “도시인은 육식당-연말 경성에 도축 급증”
 20) 「조선일보」(1938.8.6) “육식당에 대타격-두수와 가격 모다 격소”
 21) 「조선일보」(1938.11.8) “무던히 먹었군- 시월중 경성부민의 육식량”

많이 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38년 8월 6일에는 “육식당에 대타격-두수와 가격 모다 격소”라고 하였다. 실제로 위에 제시한 <Table 3>을 보면 1937년 12월보다 1938년 7월에 도축한 소의 숫자가 1,291마리가 줄었고, 돼지는 126마리가 줄었으며 가격은 폭등했음을 알 수 있다. 기사내용에는 그 이유가 밝혀져있지 않으나, 중일전쟁의 영향으로 비상시국 하에 모든 물가가 올라있는 상황이었으리라 생각된다. 1938년 11월 8일에는 소의 도축수가 늘었으나 돼지는 조금 줄었고 대신 말이 1938년 7월의 9마리에서 20마리로 크게 늘었다.

평양의 우육 소비에 대해서는 「매일신보」 1941년 10월 23일자에 “평양은 소고기가 명물로 되어있슬뿐 아니라 소고기를 먹는 양에 있어서 전조선에서 제 1위를 점하고 있다. 그 원인은 대부분 명물 불고기와 스기야끼, 갈비를 만히 먹는데 큰원인”²²⁾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비상시국 하에 쇠고기 소비가 늘자 평남도 보안과에서는 “불고기는 일인당 150몸메²³⁾, 스기야끼는 100몸메, 갈비는 300몸메로 제한하여 팔도록” 제한하였다.

이렇듯 경성과 평양을 비롯 우리나라에서 가장 선호되었던 육류는 쇠고기였는데, 그 사실은 「조선일보」 1937년 1월 14일자 기사에도 잘 나타나 있다. “영양과 맛으로 육류의 왕자-쇠고기”라는 기사에서 “사실 무슨고기 무슨고기해도 쇠고기만치 맛조흔 고기도 드물것입니다. (중략) 조선쇠고기는 천하에 맛조키로 제일입니다. (중략) 제일 조흔 고기는 등심이고 그 다음에는 배살 다리 꼬리의 순서로 제일 나쁘데가 두부(머리)고기입니다.”²⁴⁾라고 하여 우리나라의 쇠고기 선호 성향을 짐작할 수 있으며 특히 등심을 제일 선호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육식은 대도시 일부계층에 한정되었고, 대부분의 서민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았다. 『한국민중구술열전』의 구술자료에 나타난 “소 한 마리 키워가 팔면 논 말가오지기 살 수 있었다.”²⁵⁾라는 김순현의 증언에서 1940년 즈음의 소 값을 짐작할 수 있다. ‘말가오지기’란 ‘삼백평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당시 소는 큰 재산이었고 살림밑천이었다.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농사를 짓는데 반드시 필요한 일꾼이자 큰 재산인 소를 식육을 위해 도살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특히 일제 식민지라는 시대적 특성상 우리나라

일반 국민이 소비할 수 있었던 육류량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2. 해방 이후 혼란기(1945~1975년)

1945년 해방직후 우리나라 식량수급 상황은 매우 열악해 식생활의 가장 기본인 쌀마저 턱없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육류 수급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으며, 정부에서는 사회 안정을 위해 물가를 통제하였다. 1946년 8월 2일 현재 물가 시세 중 육류는 “소고기 1근 70원, 돼지고기 1근 70원”²⁶⁾으로 공정가격으로 물가가 조정되는 상황에서 한때 쇠고기, 돼지고기의 가격이 동일하게 통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남한지역의 소의 숫자는 “짓짤 소를 합하여 55만 7천마리”였으며, 1946년 10월 한달 중에 4천 3백 2십4마리가 도살²⁷⁾되는 수준이었고 도축량은 증가세를 보였다. 소가 부족한 상황에서 계속 도살이 이루어지자 “농무부에서 법령 145호를 발표하여 열 살 미만의 소는 도살을 금지하였는데 착유우는 예외로하고 단 임신우(妊娠牛)는 연령을 불문하고 절대로 도살을 못하게”²⁸⁾하였다. 그리고 “중앙청 농무부 축산과에서 금년도 축우도살 용인수”²⁹⁾를 정하였는데 관련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표로 만들면 <Table 4>와 같다.

<Table 4> The Number of Butchered Livestock in 1947³⁰⁾

area	butchered livestock
Seoul	15,750
Gyeonggi	14,205
Chungbuk	3,991
Chungnam	6,863
Junbuk	4,762
Junnam	6,661
Gyeongbuk	10,084
Gyeongnam	8,034
Gangwon	3,147
total	74,306 (73,497)

정부의 시책에도 불구하고 고기값은 계속 폭등하였는데 “서울시내에 이발료, 고기값, 숙박료등은 제정된 최고가격이 엄연히 존재해있으나 업자들은 마음나는대로 가격을 올려서 시민들을 울리고”³²⁾ “고기값이 꺾춤” 뛰어 “종래 소고기는 340원, 돼지고기는 330원 하든 것이 13일부터는 소고기 400

22) 당시 신문기사의 원문표기를 그대로 옮김
 23) ‘몸메’란 일제강점기의 무게단위이며 匁(돈)을 일컫는 것인데, 一匁이 3.75 g이므로 百匁은 375 g이다. 즉 불고기는 562.5 g, 스기야끼는 375 g, 뼈가 붙은 갈비는 1,125 g로 1인당 판매량을 제한했음을 알 수 있다.
 24) 당시 신문기사의 원문표기를 그대로 옮김
 25) 김철호(2008). 『한국민중구술열전 김순현 1925년2월15일생』, p 75
 26) 「조선일보」(1946. 8. 4) “물가시세”
 27) 「조선일보」(1947. 1. 18) “南朝鮮牛統計(남조선우통계)”
 28) 「조선일보」(1947. 6. 21) “畜牛屠殺에 斷 (축우도살에 단)”
 29) 「조선일보」(1947. 9. 10) “끔찍스럽게 먹었다- 금년도 축우도살 7만 4천두”
 30) 출처: 「조선일보」 1947.9.10
 31) 기사원문에는 총합계가 74,306으로 기재되어있으나 실제 총합계는 73,497이므로 계산 오류로 사료됨
 32) 「조선일보」 (1948. 3. 6) “이발, 숙박, 고기값등 최고물가 무시에 물의”

원, 도야지고기 370원으로 각각 인상하기로 되었는데 현재 대중에게는 좀처럼 고기가 입수되지 않는 이유는 도살수도 적지마는 업자들이 비밀협정가격으로서 각 음식점자에게 팔아온 관계³³⁾라고 보도되어 당시 고기공급체계가 혼란스러웠음을 짐작할 수 있다.

1949년 기사에는 “우리나라의 소는 질적으로나 번식으로나 동양의 중주국으로까지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데 요즈음 와서는 오히려 농우 기근에 봉착”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래서 “당국에서는 농우기근방지책으로 전국에 걸쳐 식육 판매업자를 대폭 정비³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석에 대비해서는 서울시에서 “소 3십 마리 돼지 3십 마리를 더 잡아서 시민의 고기있는 추석을 지내게³⁵⁾하도록 수급을 조정하기도 했는데 이후에도 고기값은 천정부지로 계속 치솟았다.

“서울식육업 조합에서는 소고기값 현행 지정요금 근당 4백 원으로부터 5백원으로 올릴 것을 획책하여 농우 도살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시민생활에 또하나의 과중한 부담을 가져오게 된다 하여 일반의 비난을 받은바 있었음에 불구하고 (중략) 일부업자들은 당국의 하등지시 없이 근당 5백원씩을³⁶⁾ 받았다.

또한 1949년 11월 서울 식육업 조합은 소 값이 올라 채산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인상건의를 했다가 실패한 후, 1950년 1월 10일 “업자와 시산업과 직원이 입회하여 소를 실지로 사서 도살한 자료를 토대로 소고기 520원에 돼지고기는 500원³⁷⁾으로 가격을 인상하였다. 그렇지만 그 후에도 “생우 가격 양등 이유로 수차에 걸쳐 인상을 획책하여 도살두수를 줄이는 반면 6백원내지 7백원의 암매매”가 이루어졌고 “정직한 시민들에게 소고기는 그림의 떡이 되고 말았다.”³⁸⁾고 하였다.

「조선일보」 1948년 3월 6일 “우육대신 돈육-대대적 양돈 결정”이라는 기사에서는 “농우의 무계획 도살로 인하여 남조선에서는 농사에 지장이 생길정도”라고 하였다. “서울 양돈조합에서는 소고기 대신 도야지고기를 대용하지는 견지에서 금번 남조선일대에서 도야지 14만여두를 구입하여 서울시의 일대에서 양돈하기로 되었는데 식생활에 기대 되는바 크다.”라고 하였다. 농우보호를 위해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쇠고기의 대체재인 돼지고기의 소비를 늘리려는 정책을 시도했음을 알 수 있다.

6·25 전쟁을 거치면서 한우보유 마리 수는 급격히 줄어 1953년에는 39만2천 마리까지 내려갔다. 그 후 질서가 회복

되면서 1963년에는 1백36만 마리까지 늘어났으나, 쇠고기 수요도 크게 늘어 다시 보유 마리 수가 감퇴하는 경향을 나타냈다.³⁹⁾

또한 이 시기에는 밀도살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정부에서는 “축우 매매에 시민증을 제시하게 하고 쇠고기를 사용하는 요정, 음식점에는 영업권을 취소하는 등” 다각적인 시책을 폈다. 그러나 “시중 각 음식점, 요정에는 의연 갈비 불고기 등 주지육립 그대로의 호화판을 이루고 있으며 영업집에 붙어있는 ‘당국 지시에 의하여 절대로 우육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게시문은 오히려 당국시책을 비웃는 듯한 감을 주고 있다. (중략) 시 경찰국에서 금년 1월1일부터 4월 10일까지 사이에 적발한 밀도살 건수를 보면 실로 37건 53두로 되어있으며 이 숫자로 보아 서울에서는 2일에 1두씩 밀도살이 감행되고 있는 것이다.”⁴⁰⁾라고 하여 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음을 지적했다.

「평택일기로 본 농촌생활사」에 기록된 경기도 평택시 대곡마을에 사는 농부 신권식의 1960년 4월 8일 일기에 따르면, “작은 집 소가 음식을 잘못 먹어서 죽자 동네에서 팔아치우기로 하고 한 근에 450환 가격으로 분육하여 나눔, 소의 시가는 20만환인데 고기값으로 8만환을 건졌다”는 내용이 있다. 또한 “1959년-1960년 안중장의 돼지고기 값은 1근에 160-250원이었고 동네에서 돼지를 잡으면 시장에서 사오는 가격보다 절반 정도의 가격에 살 수 있었다⁴¹⁾”고 하여 당시의 쇠고기, 돼지고기의 시세를 짐작할 수 있다.

「동아일보」 1967년 5월 12일자 「끈질긴 쇠고기 파동」에서는 협정가대로 장사를 할 수 없다고 정육점들이 자진 휴업상태에 있으며, 이에 대해 정부가 “영업허가를 취소할 방침 세우고 음식점자들이 스스로 쇠고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한일관, 삼오정, 우래옥, 진고개, 한국회관 등 대량 수요요식업체에 정육점 신규허가를 내주었다.”고 하여 협정가를 사이에 두고 정육업자들과 당국의 줄다리기가 쇠고기 파동에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1967년 7월부터는 쇠고기 판매방식에 커다란 변화가 생겼는데, 서울시가 쇠고기를 특상, 상, 중, 하의 4등급으로 나누는 등급제를 채택하고 등급에 따른 정찰제를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초기에는 “쇠고기 질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일반인들이 악덕업자에게 속을 수 있고 불고기나 로스구이 같은 것은 특상품으로 해야 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 현재 1백 50원하는 불고기는 4백원을 받아야 한다.”⁴²⁾라며 전반적

33) 「조선일보」(1949. 5. 14) “고기값이 경중-우육 4백원으로”

34) 「서울신문」(1949. 9. 25) (2) “소를 사랑하자-푸주간도 대량정비”

35) 「조선일보」(1949. 10. 5) “秋夕에 대비하여 고기를 담백 韓旋(알선)”

36) 「조선일보」(1949. 12. 24) “소고기값을 5백원에 부정매매”

37) 「조선일보」(1950. 1. 17) “肉類價 三割 昂騰(양등)”

38) 「조선일보」(1950. 4. 20) “물가는 續續(속속) 暴騰(폭등)- 소고기 7백원으로”

39) 「중앙일보」(1975. 7. 29) 5면 “쇠고기는 용도 따라 선택해야”

40) 「조선일보」(1952. 4. 14)

41) 신권식(2007). 「평택일기로 본 농촌생활사」, 수원: 경기문화재단, p 74 신권식씨가 1954년부터 현재까지 써온 일기를 편찬한 책으로, 1959-1960년 사이의 축산물 매매 현황을 참조하였다.

으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제기되 정착이 쉽지 않았다. 때문에 당시 신문기사에는 쇠고기 등급 판별법과 음식에 따른 쇠고기 부위선택에 대한 정보가 많이 나타난다.

정육점에서 안심을 달라고 하는 무지를 범하지 말 것. 쇠고기의 가장 특등육인 안심은 가정에서 만드는 음식엔 별로 소용되는 곳이 없을 뿐 아니라 (중략) 이 고기는 비프 스테이크 만드는데만 소용되므로 정육점에서도 양식집등으로 안에 들여놓는 것이다. (중략) 등심은 꼭 불고기 만들 때만 사고 다른 음식만들려면 살 필요가 없다. 찌개나 국을 끓이려면 보통육이나 그보다 더싼 막고기를 사면 좋다.⁴²⁾

1968년의 이 기사에 의하면 당시 가정에서 안심을 이용하여 조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스테이크는 양식집에 가서 먹는 음식이라고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불고기는 주로 등심을 이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불과 2년 후인 1970년 10월 9일 같은 「경향신문」의 기사에는 한강 맨션가를 중심으로 고급화된 다른 풍속도가 그려진다.

모든 것이 기계화된 최신설비의 고깃간도 불만하다. 이곳을 찾는 맨션족의 주문도 무척 까다롭다. ‘양식요리를 하려는데 안심을 보내달라’는 식. 진열장에는 스테이크 불고기 로스구이등 갖가지 필요에 따라 고급품이 즐비하다.⁴³⁾

즉 ‘맨션족’들은 집에서 양식요리를 하기위해 안심 배달을 요구하는 등 1970년대 들어 육류 조리에 대한 선호도나 태도가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정육점’을 지칭하는 용어도 다양하게 나타나서 ‘식육점’, ‘식육 판매업소’⁴⁵⁾, ‘정육점’⁴⁶⁾, ‘푸줏간’⁴⁷⁾ 등 다양한 용어가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서울 성동구 마장동 766일대의 마장동 축산시장은 1960년대 초 우시장이 이 일대에 들어서면서 하나 둘씩 축산물가게가 생겨났고, 도축회사인 우성농역이 1965년 설립되면서 축산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 회사가 1974년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인가를 받아 도축두수가 늘어나면서 주변의 점포들도 크게 증가하였고 국내최대 축산도매시장으로 자리잡게 되었다.⁴⁸⁾

3. 경제발전 전기(1976~2000년)

국민소득 5백 달러를 넘어서면 식생활 패턴도 달라져 곡

물보다 육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 세계적 추세⁴⁹⁾일 정도로 육류소비는 국민소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리나라도 <Table 5>에서 볼 수 있듯이 1975년에 1인당 GNP가 531\$ 이 되면서 육류의 소비량이 급격히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Table 5> The Change of Meat consumption in Korea⁵⁰⁾

year	beef	pork	GNP per person(\$)
67	1.1	2.5	143
71	1.2	2.5	293
75	2.0	2.8	531
81(estimation)	3.0	3.8	1,283

이렇듯 197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의 육류 소비량이 급격히 증가했는데, 육류 중에서도 특히 쇠고기 부족이 문제되었고 결국 1976년 9월 외국산 쇠고기가 첫 수입되어 “뉴질랜드산 수입쇠고기 500t이 이탈리아 리페호 편으로 25일 인천항에 입하”⁵¹⁾했다. 초기에는 수입쇠고기에 대해서 “뉴우지일랜드에서 들여온 수입쇠고기는 맛이 없어 주부들간에 인기가 없다. 누린내가 나서 못쓰겠다는게 이유인데 기름기가 많고 연해서 양념에 채워먹는 불고기로는 먹을만하지만 국거리로는 아주 적합지 못하다는 것이다. (중략) 소의 종류가 한우와는 다른 비육우여서 우리가 늘 먹어오던 고기와 향기 성분 맛성분이 달라 누린내로 역겨움을 일으키기 때문이다.”⁵²⁾라고 했다. 그러나 점차 수입쇠고기는 맛과 가격면에서 경쟁력을 갖추어 수요가 늘게 되었다. 수입쇠고기의 인기가 높아진 것은 “불고기 로스구이용으로는 맛이 한우고기에 못지않고 6백g당 1천 6백원으로 값이 싸기 때문”⁵³⁾이다. 1976년 6백 94t으로 시작된 쇠고기 수입은 1977년 6천 3백 23t, 1978년에는 4만 4천4백 35t으로 급격히 늘었다가, 경기침체를 반영해서 1979년에는 3만 1천 7백 47t으로 줄었다. 수입쇠고기를 포함한 쇠고기 소비량은 한창 호황이었던 1978년에 11만 5천t, 1979년엔 11만 4천t, 1980년 10만 3천t으로 나타났다.⁵⁴⁾

경제발전 전기의 육류소비 경향을 살펴보면, 전통적으로 쇠고기를 선호해온 우리나라의 육류 소비경향이 이 시기에 도 지속된 것을 알 수 있다. 「동아일보」 1981년 4월 29일

42) 「경향신문」(1967. 5. 17) “쇠고기값 등급제”
 43) 「경향신문」(1968. 9. 16) “비싼것만이 좋은건 아니다”
 44) 「경향신문」(1970. 10. 9) “서울 새풍속도”
 45) 「조선일보」(1962. 10. 9)
 46) 「동아일보」(1967. 5. 12)
 47) 「동아일보」(1972. 1. 18)
 48) 「세계일보」(1993. 9. 5) “마장동 축산시장”
 49) 「중앙일보」(1975. 7. 29) “쇠고기는 용도 따라 선택해야”
 50) 출처: 「중앙일보」1976. 7. 6 (단위: 1인당, 연간=kg)
 51) 「경향신문」(1976. 8. 26)
 52) 「동아일보」(1976. 9. 24) “맛없는 수입쇠고기”
 53) 「동아일보」(1978. 3. 23) “수입쇠고기 수요 늘어”
 54) 「동아일보」(1981. 4. 29) “쇠고기 값올라도 줄지 않는 수요”

◇消費者들이 많이 찾는肉 部位名

部 位 名	월 1인당		별 지역		별 평균		
	반년	연간	서울지역	지방도시			
쇠고기	등심	56.1	55.1	62.3	57.3	28.6	55.8
	안심	26.0	28.6	18.8	28.0	47.6	26.9
	코	10.6	12.2	15.9	9.8	-	11.0
돼지고기	삼겹살	55.9	57.5	50.0	58.5	83.3	56.7
	소겹살	12.5	35.5	44.3	39.0	8.3	39.0
	지키	1.6	7.0	5.7	2.5	8.4	4.3
복정부위를 찾는 소비자들이		54.1	49.5	52.1	49.4	43.8	51.8

<Figure 2> The article about Korean consumer's meats preference in 1981⁵⁵⁾

자 “쇠고기 값 올라도 줄지 않는 수요”에서는 “국민소득면에서 볼 때 우리 국민은 지나치게 쇠고기를 많이 먹는 것으로 돼있다. 전체 육류소비량은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쇠고기만 유독 높은 것은 육류섭취에 있어 쇠고기만 지나치게 선호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과거에는 국거리 등 내장을 끼워 사가는 경우가 많았으나 1980년대 들어서면서는 “사태, 갈비, 제비추리 등 맛있는 부분만 골라가는 경향”을 보였다.

<Figure 2>에 나타난 것처럼 「매일경제」 1981년 4월 24일에 보도된 축협중앙회의 “육류부위별 인기도 조사”의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쇠고기 중 등심을 가장 선호하고, 돼지고기는 살코기를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좋아하는 부위를 묻는 질문에 쇠고기는 ‘등심’이 55.8%, ‘살코기’가 26.9%였다. 돼지고기의 경우는 ‘살코기’가 56.7%, ‘삼겹살’이 39%였으며, 서울과 지방 도시에서는 ‘삼겹살’을, 농촌에서는 ‘살코기’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1978년 8월에는 수입쇠고기 판매방식에 새로운 변화가 시도 되었다. 농수산부가 수입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파는 것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수입쇠고기 포장 판매를 실시한 것이다. “수입쇠고기를 안심, 등심, 불고기, 양지, 갈비, 분쇄육 등 6가지로 분류하고 3백g, 6백g단위로 비닐포장하여 농협 직매점을 통해 시판”⁵⁶⁾하도록 하였다. 이 시도를 발판으로 1981년 9월부터는 새로운 포장육 시대가 열리게 되었는데, “포장육 시판은 지금까지 주로 정육점에서만 사던 쇠고기를 슈퍼마켓, 축협 또는 한국냉장의 직매점, 일반식품점등 일정 시설을 갖춘 가게에서는 어디서나 잡화를 고르듯 살 수 있게 함으로써 쇠고기 유통구조 개선에 획기적 계기”⁵⁷⁾가 되었다. 즉 정육점이 아닌 곳에서도 포장육을 팔 수 있게 되자 수입쇠고기 포장육은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게 되었다. 인기리에 판매된 포장육이 정착단계 접어들면서 마침내 ‘81

년 경제新語’에 ‘포장육’이라는 단어가 첨가되기에 이르렀다.

수입쇠고기 포장육이 이렇게 인기를 얻고 정착되자 한우로도 포장육이 확대되고 쇠고기의 부위별 등급제 판매제도가 실시⁵⁸⁾된 것에 이어, 1983년 8월에는 돼지고기 포장육도 시판되기 시작하였다.⁵⁹⁾ 돼지고기 포장육은 불고기용과 삼겹살 고기, 일반고기 등 3가지 부위별로 나눠 포장, 냉동하여 판매되었다.

1985년에는 종전 서울과 부산 등 2개 지역만 쇠고기포장육 판매지역으로 삼던 것을 인천, 전주등 21개 지역을 더 늘려서 포장쇠고기 판매가 23개市로 확대되었다.⁶⁰⁾ 또한 산지의 소·돼지 값 변동에 맞추어 각 시도지사가 소비자가격을 고시해 왔던 기존의 연동가격제가 폐지되고, 1991년 1월 1일부터 육류가격을 육질과 시장기능에 따라 결정토록 하는 육류 소비자가격 자율화가 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쇠고기의 경우 한우·젓소·수입쇠고기가 차등가격으로 판매되고 같은 한우고기라도 안심·등심·양지·사태 등 부위별로 가격이 달리 형성⁶¹⁾되었다.

1990년대 들어 기존의 뿌리 깊은 쇠고기 선호 성향에 제동이 걸리게 되었는데 그 원인 중 하나는 광우병의 발발이었다.⁶²⁾ 이 시기에는 여러가지 가축병으로 인해 각종 육류 소비량의 등락이 심했고 IMF의 영향 등으로 가격 역전현상이 나타났다. 일시적으로 돼지고기 일부육이 수입 쇠고기보다 비싸지고(1991년 6월), 더 나아가 한우보다도 비싸지는 현상(1998년 3월)이 나타났다. 그리고 수입 쇠고기가 한우보다 비싸지는 현상(1998년 6월)도 나타났다. 1996년 영국에서 일어난 광우병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영국산 쇠고기를 수입한 일이 없다”고 보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쇠고기 파동이 일었다. 백화점과 정육점 등에서는 수입쇠고기 판매량이 최고 50~10%까지 격감하고, 일반 음식점에서도 ‘쇠고기 음식 기피증’이 나타났다.⁶³⁾ 이러한 광우병 파동과 더불어 성인병 주범인 콜레스테롤이 쇠고기에 더 많다는 인식, 그리고 경기침체 등으로 쇠고기의 소비는 줄고 대체재로 돼지고기 소비가 증가되었다.

그런데 1997년 3월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의 돼지고기 수출이 증대되었고, 국내 소비증가와 맞물려 돼지고기 값은 연일 상승세를 타게 되었다. 반면, 쇠고기는 소값 하락에 따른 불황여파로 판매마저 줄면서 한우고기 값은 계속 내리는 상황이어서 1997년 중순에 돼지고기(삼겹살) 값이 한우고기(불고기용) 값보다 비싸지는 기현상이 나타났다.⁶⁴⁾ 또한 IMF 영

55) 출처: 「매일경제」 1981. 4. 24

56) 「동아일보」(1978. 8. 8) “수입쇠고기 포장 판매”

57) 「경향신문」(1981. 8. 28) “쇠고기도 포장육 시대로”

58) 「매일경제」(1982. 11. 27) “수입쇠고기 부위별 차등가제”

59) 「경향신문」(1983. 8. 4) “돼지고기도 포장 시판”

60) 「동아일보」(1985. 7. 3) “포장쇠고기 판매 23개市 확대”

61) 「서울신문」(1990. 11. 18) 7면 “소·돼지고기값 자율화”

62) 1986년 영국에서 처음 발견된 광우병(狂牛病)은 이후 중동의 오만과 스위스(1990년)에 이어 프랑스(1991년), 덴마크(1992년) 등 유럽 각국으로 번져 유럽 축산업계에 막대한 타격을 입혔다.(「한국일보」(2003. 12. 25) 3면)

63) 「한국일보」(1996. 3. 26) 38면 “이번엔 쇠고기 파동 조짐”

향으로 한우고기와 돼지고기 값이 부분적으로 역전되기도 했다. 100% 수입사료를 쓰는 돼지고기는 IMF체제가 시작되기 전보다 값이 인상된 반면, 출하량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쇠고기 값은 내렸기 때문이다. 수입사료에 의존 돼지고기 50%나 인상되면서 삼겹살이 불고기감보다 kg당 2천원 비싸졌다.⁶⁵⁾ 한편 1997년 7월부터 쌀과 소고기를 제외한 농축수산물시장의 전면개방정책에 따라 국내 돼지고기 시장이 전면 개방되었다. 기존의 미미한 규모의 냉장육 수입과는 달리 1997년에는 냉동육의 수입이 개방되자 냉동육은 냉장육에 비해 변질 우려가 거의 없어 선박을 이용한 대량수송이 가능해지게 되었다.⁶⁶⁾ 이에 따라 냉동돼지고기 1천1백40t이 들어왔으며 그중 삼겹살이 9백65t에 이르렀다.⁶⁷⁾

이런 가운데 1997년 9월 26일에는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서 O-157 균이 발견되었다. 때문에 쇠고기 소비는 다시 불황을 맞고 수입 쇠고기뿐 아니라 한우까지 피해가 확산되었다. 대신 닭고기·돼지고기·수산물 소비량은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O-157 파동 후 음식점 메뉴에서 육회가 사라지는 등 완전히 익혀서 먹는 ‘화식 문화’가 확산되기도 하였다.⁶⁸⁾ Lee 등(1999)의 연구에 따르면, 1998년에는 육류 소비가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주로 수입육의 소비가 감소한 데 기인했다. 1997년 말부터 시작된 IMF 관리체제의 영향으로 환율이 상승함에 따라 수입육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되고 O-157에 감염된 미국 네브래스카산 쇠고기 유통 등으로 수입육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1998년 6월에는 한우고기값이 수입쇠고기보다 싸지는 현상이 일어났다. 수입육은 IMF 체제 이후 환율상승으로 가격이 제자리에 머물거나 인상된 반면, 한우 고기는 국내 소값 폭락으로 인해 출하량이 크게 늘면서 가격이 계속 떨어져 생긴 역전현상이었다.⁶⁹⁾

1999년에는 발암물질 다이옥신에 오염된 벨기에산 돼지고기 2천 4백톤이 국내시장에 수입 유통돼 비상이 걸렸다. 다이옥신이 검출된 벨기에산 돼지고기와 닭고기, 계란에 대해 농림부가 전면 수입중단 조치⁷⁰⁾를 취하고 프랑스·네덜란드산 돼지고기도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에 오염됐을 것으로 보고 추가로 검역보류 조치⁷¹⁾를 내리자 수입 돼지고기 수요는

크게 줄어들었으나 반면 국산 돼지고기는 ‘다이옥신 특수’를 누렸다.⁷²⁾

4. 경제발전 후기 (2000년 이후)

전 시대에 급속히 늘어났던 육식 소비량에 비해 2000년을 전후한 우리나라 육류 소비량은 감소·정체를 보이다가 2008년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성인병이나 과체중과 같은 부작용을 우려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육식 소비량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2000년 육류소비를 보면 쇠고기는 1인당 8.5 kg, 돼지고기의 경우는 2001년에 1인당 16.5 kg씩을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2000년 국내 돼지고기 소비량은 수입된 9만5891t을 포함해 77만 9908t으로 부위별로는 삼겹살이 국민 1인당 3.66 kg꼴인 17만3139t으로 가장 많이 소비됐다. 특히 우리 국민들이 즐겨먹는 삼겹살은 국내 생산량이 모자라 전체 소비량의 약 3분의1인 4만 9863t이 수입되었다.⁷³⁾ 수입돼지고기 부위로는 삼겹살의 비중이 가장 높고 목살, 갈비 등의 차례⁷⁴⁾였다. 2002년 3월에는 “돼지 구제역 파동으로 공급물량이 급격히 줄면서 돼지고기값이 더 오를 반면 수입 쇠고기는 점유율을 확대하려는 외국 업체들의 공세로 가격이 낮아져 일부 국산 돼지고기 삼겹살 값이 수입산 쇠고기 값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현상이 나타났다.”⁷⁵⁾

이런 상황에서 결정적으로 돼지고기 수요를 촉진한 것은 2003년 말의 미국발 광우병이었다.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금지조치를 취했는데, 2002년 기준으로 전체 쇠고기 공급물량 45만7,700t중 수입산은 31만2,000t(68.2%)에 달했으며 수입 쇠고기 중 미국산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만큼 쇠고기 수급문제에 많은 부작용⁷⁶⁾이 나타났다. 2003년 말의 미국발 광우병 파동은 “고기전문점 70%, 설렁탕, 곰탕 전문점 60%, 양곱창 전문점 60% 매출하락⁷⁷⁾”으로 나타날만큼 국내 외식시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었다.

Song 등(2004)의 연구에 따르면, 소 산지 가격은 일반적으로 매년 연말연시에 가격이 최고조에 이르렀다가 구정이나 추석 3-4월에는 가격이 하락하고, 5월 행락철에 접어들면서 다시 상승하기 시작해 연말까지 상승한다. 그런데 간헐적인 가축 질병 발생이 월별 가격순환을 교란시켰다. 즉, 1차

64) 「경향신문」(1997. 7. 4) 1면 “돼지고기값 쇠고기보다 비싸다”
「세계일보」(1997. 5. 24) “돼지고기 “기살아” ... 소고기는 “기죽어”

65) 「국민일보」(1998. 3. 31) 19면 “돼지-한우고기 값 역전”

66) 「서울신문」(1996. 4. 29) “돼지고기 일본수출 최대 지원”

67) 「세계일보」(1997. 7. 17) “대기업 먹거리수입 경쟁”

68) 「경향신문」(1997. 10. 5) 3면 “‘소대신 닭’ 달라진 육식문화/O-157 쇼크’ 현장리포”

69) 「동아일보」(1998. 6. 10) 2면 “韓牛-수입육 가격 역전 기현상”

70) 「경향신문」(1999. 6. 5) 19면 “‘다이옥신 돼지고기’ 시중 유통”

71) 「한국일보」(1999. 6. 7) 23면 “프랑스등 유럽산 ‘다이옥신 공포’ 확산”

72) 「한겨레」(1999. 6. 11) 27면 “국산 돼지고기 다이옥신 특수”

73) 「국민일보」(2001. 4. 6) 38면 “작년 1인 육류소비 돼지고기 16.5 kg씩 쇠고기 8.5 kg”

74) 「문화일보」(2000. 2. 22) 21면 “<이것이 토종> 돼지고기 삼겹살”

75) 「문화일보」(2002. 5. 20) 10면 “국산 삼겹살값 수입쇠고기 추월”

76) 「문화일보」(2003. 12. 24) 1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77) 「월간식당」2004년 2월호 “광우병, 조류독감 파동 그 후”, p 95

구제역이 발생한 2000년 3월에는 가격하락 추세가 심화되었고, 광우병 소동이 있었던 2001년 1월 이후에는 가격 하락 추세가 길었다. 그런데 2002년 5월 2차 구제역은 주로 돼지에 발생하여 소 값에 영향 주지 않았다. 그러나 2004년 초 가격하락은 미국 광우병으로 말미암아 영향이 크고 장기간에 걸쳐졌다. 이미 2003년 12월 10일 충북 음성군에서 조류독감이 발생⁷⁸⁾한 상태였기 때문에, 쇠고기 소비가 급감하자 대체재인 돼지고기의 소비는 급격히 증가했다. “광우병과 조류독감 덕분에 돼지고기가 ‘깜짝 특수(特需)’를 누리면서 돼지고기 판매가 50% 이상 급증⁷⁹⁾”한 반면 “소갈비전문점의 경우 평균 70-80%까지 매출이 급락⁸⁰⁾”하였다. 2004년 들어 유통업체의 파격적인 가격 할인에도 불구하고 광우병 여파로 쇠고기 소비가 30% 가까이 줄고⁸¹⁾ 돼지고기는 공급이 달려 가격이 역대 최고치까지 치솟으면서 일부 지역에서 쇠고기와 돼지고기 가격 역전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같은 가격 역전 현상에는 PMWS(이유후전신소모성증후군) 등 만성호흡기 질병으로 돼지 출하두수가 줄고 사료값이 크게 오른 이유도 있었다.⁸²⁾

국내 공급이 늘어나는 돼지고기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돼지고기 수입이 급증하였다. 돼지고기는 1999년 14만2천t, 2000년 9만6천t, 2001년 10만t 등이 수입됐다. 수입된 돼지고기의 80% 이상은 삼겹살(4만3천7백5t)과 목심(4,624t)인 것으로 조사됐다.⁸³⁾ 2005년 6월 국내에서 유통되는 삼겹살의 수입 대상국은 냉동육 기준으로 네덜란드, 덴마크, 멕시코, 미국,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영국, 오스트리아, 칠레, 캐나다,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호주 등 무려 16개국이다.⁸⁴⁾ 또 냉장삼겹살은 네덜란드 멕시코 미국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호주 등 7개국에서 2333t이 수입됐다.⁸⁵⁾ 이런 현상을 두고 “한국인의 식탁은 세계 삼겹살의 경연장⁸⁶⁾”이라고 표현되기도 했다.

또한 이 시기에는 돼지고기에 관련해서 일시적으로 “가격, 수입량, 계절”의 3가지 역전 현상이 벌어졌다. 첫 번째 가격 역전 현상으로는 ‘고급 삼겹살’과 파격세일에 들어간 ‘한우 국거리’ 가격이 역전⁸⁷⁾되었고, 또한 쇠고기보다 비싼 유기농 돼지고기가 등장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비싼 삼겹살 대신 싼 쇠고기 드세요.’라며 할인점들이 대대적인 쇠고기 할인판매에 나서는 현상이 벌어졌다.⁸⁸⁾ 두 번째 수입량 역전은

돼지고기와 쇠고기의 수입량이 역전된 것을 의미한다. 2003년까지 쇠고기 수입량의 3분의 1 수준이던 돼지고기 수입량이 2004년부터 쇠고기를 추월했다. 2005년 상반기에는 돼지고기 수입량이 쇠고기 수입량의 1.5배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⁸⁹⁾ 세 번째 계절역전은 ‘여름철 돼지고기는 잘 먹어야 본전’이라며 회피하던 것이 냉장·냉동 시설의 발달로 과거의 일이 되고, 오히려 돼지고기의 성수기가 나들이 철에서 여름 휴가철인 7-8월이 된 것을 의미한다. 나들이 철이 되면서 삼겹살 등 돼지고기 값이 사상 최고치로 뛰는 현상이 벌어지고 ‘삼겹살은 더울수록 잘 팔리는 상품’⁹⁰⁾이 되었다.

우리나라 육식소비량의 공식적인 통계량은 1955년부터 집계되었다. 1955년부터 최근까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소비량의 총량과 1인당 소비량을 5년 단위로 표로 정리하면 <Table 6>과 같다.

1970년대에 들어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 지속되면서 국민소득 증대에 따라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육류의 소비가 점차 증가하여 1975년도 육류소비 총량 224,734톤이 2000년도에는 6.7배가 넘는 1,509,587톤에 이르렀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육류 소비량은 1975년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상승되며, 2000년 이후로는 담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가 다시 증가세임을 알 수 있다. 위의 표를 바탕으로 그래프를 그리면 <Figure 3, 4>와 같다.

식육류의 1인당 연간 소비량을 볼 때 쇠고기가 1975년도 약 2kg 소비에서 2000년도에는 약 8.5kg을 소비하여 연평균 증가율이 약 5.8%에 이르렀으나, 이후는 감소전망이다. 돼지고기는 2000년도에는 16.5kg을 소비하였는데 연간 1인당 60kg 이상 소비하는 유럽이나 홍콩의 61.2kg 대만의 43kg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양이나 증가전망이다.

III. 결 론

한 시대의 육류 공급량과 소비량은 소비경향과 식문화에 영향을 미치며 긴밀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육류소비 문화가 우리나라 생활에 정착된 과정을 살펴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각 시기별로 육류 소비량과 소비경향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제 강점기에는 식민지라는 시대적 특성상 우리나라 일

78) 「서울신문」(2003. 12. 22)

79) 「동아일보」(2003. 12. 27) 12면

80) 「월간식당」 2004년 3월호 “돼지고기”, p 113

81) 「경향신문」(2004. 5. 1) 18면

82) 「한국일보」(2004. 7. 7) 7면

83) 「경향신문」(2004. 5. 7) 22면

84) 「문화일보」(2005. 6. 7) 11면 “삼겹살 16개 나라서 수입 아시나요?”

85) 「동아일보」(2005. 6. 8) 39면 “냉동삼겹살 작년 16개국서 수입”

86) 「한국일보」(2005. 6. 8) 16면 “삼겹살, 16國서 수입”

87) 「한겨레」(2005. 7. 13) 16면 “한우가 삼겹살보다 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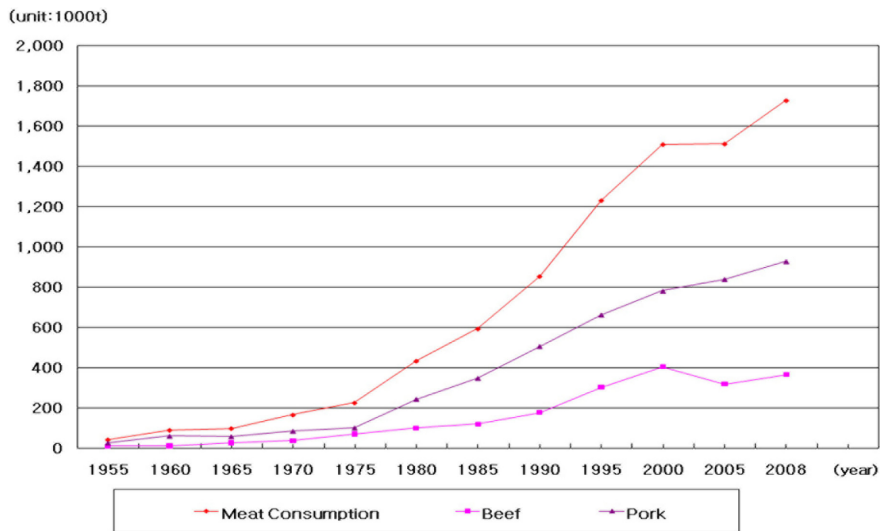
88) 「경향신문」(2005. 6. 13) 17면 “경제비타민/삼겹살보다 싼 쇠고기 드세요”

89) 「서울신문」(2005. 7. 5) 15면 “돼지고기 수입, 쇠고기의 1.5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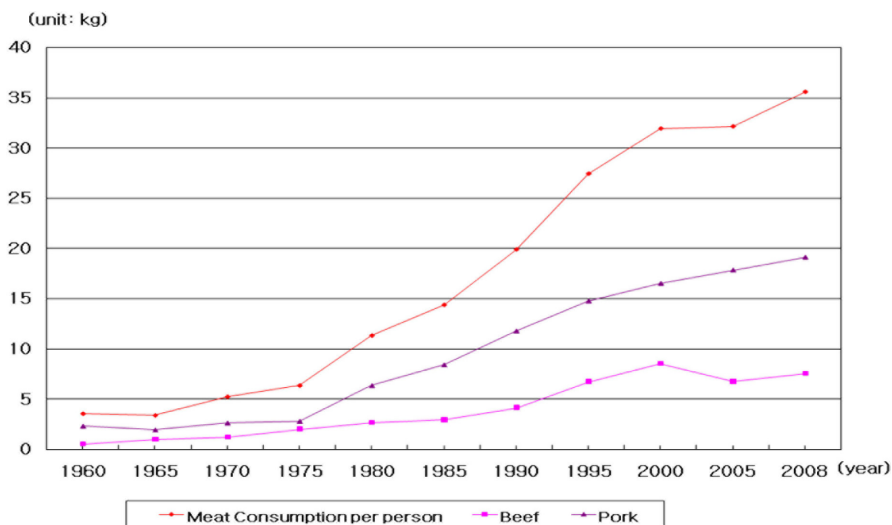
90) 「문화일보」(2006. 6. 19) 11면 “돼지님! 상종가”

<Table 6> Changes of Korean Meat Consumption (1955-2008)⁹¹⁾

year	meat consumption		beef		pork	
	total	per person	total	per person	total	per person
1955	41,517	-	11,043	-	24,354	-
1960	89,043	3,568	12,950	519	58,025	2,325
1965	97,600	3,401	27,261	950	55,881	1,947
1970	165,063	5,251	37,340	1,188	82,546	2,626
1975	224,734	6,370	70,292	1,992	98,848	2,802
1980	432,682	11,349	99,974	2,622	241,842	6,344
1985	592,862	14,398	120,342	2,923	346,274	8,410
1990	853,485	19,909	176,988	4,129	504,799	11,775
1995	1,231,003	27,447	301,217	6,720	661,710	14,750
2000	1,509,587	31,935	402,381	8,512	779,908	16,500
2005	1,512,075	32,144	316,853	6,736	838,479	17,824
2008	1,727,871	35,582	365,116	7,512	926,764	19,100



<Figure 3> Changes of Korean Meat Consumption



<Figure 4> Changes of Korean Meat Consumption per person

91) 출처: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축산물 수급 및 가격자료, 축산물 통계총람, 1955-2008 (단위: 총량 M/T, 1인당 g)

반 국민이 소비할 수 있었던 육류량은 매우 부족한 형편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경성과 평양 등의 대도시에서는 육식 소비량이 점차 증가되었고 쇠고기 선호성향이 강했다. 특히 ‘평양우’는 명물로 꼽혀 전국각지에 종우로 수송되었고, 평양 지역에서는 이미 1933년에 육식을 목적으로 식용전용 평양우를 키우기 시작했다. 이러한 육류 공급으로 평양지역은 육류구이가 발달하였고, 일제 말기에는 “평안남도 보안과”에서 전국 쇠고기 소비량 1위인 평양의 육류소비에 대해 “육식 제한량”을 각 음식점에 통고할 정도로 육류 소비량이 증가하였다.

해방과 6.25 전쟁이라는 혼란기에 육류수급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고, 사회 안정을 위해 물가를 정부에서 통제하는 상황이었다. 밀도살을 금지하는 정부의 시책에도 불구하고 고기값은 계속 폭등하여 암매매가 이루어졌고, 가격들 사이에 두고 정육업계와 정부가 줄다리기를 하는 동안 쇠고기 파동이 일기도 했다. 그런 가운데 점차 사회가 질서를 되찾으면서 공급이 안정되자 정육점이 전문시설을 갖추어 영업점을 늘려가고, 대규모의 육류도매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한편 1967년의 ‘쇠고기 등급제 실시’로 가정에서도 필요에 따라 쇠고기를 부위별로 이용하게 되었다.

경제발전 전기인 1970년대 중반에 들어서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 지속되면서 육류의 소비가 급속히 증가하였다. 소비가 가장 빠르게 증가한 품목은 쇠고기였으며, 늘어나는 소비량으로 1976년에 처음으로 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었다. 한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 쇠고기는 주로 불고기와 로스용으로 이용되면서 우리 식문화에 정착하였다. 또한 1978년에 처음 시도된 쇠고기 ‘포장판매’의 성공적인 정착은 유통구조의 혁신을 가져오면서 더욱 소비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했다. 1990년대 들어 기존의 뿌리 깊은 쇠고기 선호 성향에 제동이 걸리게 된 원인 중 하나는 광우병의 발발이었다. 더불어 건강에 관심의 증가와 경기침체 등으로 쇠고기의 소비는 줄고 대체재로 돼지고기 소비가 증가되었다. 1997년 7월부터는 쌀과 소고기를 제외한 농축수산물시장의 전면 개방정책에 따라 국내 돼지고기 시장이 개방되어 삼겹살이 위주의 냉동육이 대량 수입되었다. 1997년 9월에는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서 O-157 균이 발견되어 쇠고기 소비는 다시 불황을 맞고 한우까지 피해가 확산되었고 대신 돼지고기의 소비량은 증가하였다.

경제발전 후기에는 전 시대에 급속히 늘어났던 육식 소비량에 비해 2000년을 전후한 우리나라 육류 소비량은 감소·정체를 보이다가 2008년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시기에 결정적으로 돼지고기 수요를 촉진한 것은 2003년

말의 미국발 광우병이었다. 쇠고기 소비가 급감하자 대체재인 돼지고기의 소비는 급격히 증가했으며 돼지고기 수입이 급증하였다. 수입된 돼지고기의 80% 이상은 삼겹살과 목심이었으며 특히 세계 각지에서 삼겹살이 수입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는 돼지고기가 일시적으로 가격과 수입량에서 쇠고기를 역전하고 과거와 달리 더운 여름철에 오히려 특수를 누리는 현상이 벌어졌다.

이상 근대 이후 약 100년간을 시기별로 나누어 소비량과 소비경향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육류 소비량이 가파르게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1인당 GNP가 5백달러가 넘어선 1975년경이다. 식생활의 서구화와 유통구조의 혁신 등으로 육류의 소비는 더욱 촉진 되었고, 경제 발전과 더불어 본격적인 육식의 대중화가 진행되었다. 육류 소비량의 등락은 경기침체나 가축병에 의해 영향을 받았으며, 특히 2003년 말의 미국발 광우병은 쇠고기 선호 경향을 약화시킴과 동시에, 돼지고기 소비증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 참고문헌

- 김철호. 2008. 한국민중구술열전 김순현 1925년2월15일생. 눈빛출판사. 서울. p 75
- 신권식. 2007. 평택일기로 본 농촌생활사. 경기문화재단. 수원. p 74
- 박명규, 서호철. 2003. 식민권력과 통계-조선총독부의 통계체계와 센서스-. 서울대학교출판부. 서울. p 56
- 이성우. 1984a. 한국식품문화사. 교문사. 서울. pp 25-35
- 이성우. 1984b. 한국식품사회사. 교문사. 서울. pp 17-28
- 朝鮮總督府. 1909-1942. 朝鮮總督府 統計年報. 朝鮮總督府. 京城
- 朝鮮總督府. 1933. 朝鮮의 産業. 朝鮮總督府. 京城
- 平安南道. 1933. 平壤小誌. 平安南道
- Lee KI, Choi JH, Lee CH, An BI. 1999. Consumer Demand for Meats in Korea. The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Song JH, Shin SY, Kim CM. 2004. A Study on Beef Consumption Changes in Korea after the outbreak of BSE in the U.S. The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Woo BJ, Chun SG, Kim HJ, Chae SH. 2009. The Construction of Meat Industry. The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Yoon GS, Woo JW. 1999. The Perception and the Consumption Behavior for the Meats in Koreans. The Korean Society of Food Science and Nutrition, 28(1):246-256

2012년 8월 20일 신규논문접수, 9월 13일 수정논문접수, 9월 25일 수정논문접수, 9월 26일 채택